

##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

김 진 영\*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시간강사)

강 순 주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상승, 가족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변화, 식생활 문화의 발달, 공간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공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방향의 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가사작업공간이 제 2의 거실로서 준 사회 공간화의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에 대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주자 위주의 가사작업공간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시대별로 아파트 가사작업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와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의 주택계획에서 가사작업공간을 계획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총 750부 중 580부(77%)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Program 10.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사작업공간의 사용행태는 가사작업용 가구 및 가전제품이 보유현황과 가사작업공간에서의 행위로 구분하였는데, 가사작업공간 내에서 발생되는 행위는 기존 거실에서 행해졌던 개인생활·가족단란·손님접대·자녀 돌보기·세탁 및 정리행위들이 가사작업공간에서도 동시에 행해지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사작업공간의식은 「가족 공동 다기능 지향」, 「다용도실 기능 지향」, 「설비 지향」의 3가지로 유형화되었다. 그 중 「다용도실 기능지향」에 대해 요구도가 높아, 특히 수납 및 저장음식과 야채들의 보관 장소로서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조부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작업공간 내 다용도실이 부엌 옆에 자그마한 보조공간의 기능으로부터 저장, 보관 및 세탁, 그 외 가사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이 젊고, 학력이 대졸인 집단, 월소득이 많은 집단이 가사작업공간에 대해서 다용도실의 기능 지향에 대한 요구, 가족공동의 공간으로서의 요구와 현대적 설비가 갖춰지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의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용도실 기능지향 요구도가 높은 것은 저장 및 보관장소에 대한 필요성이 중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